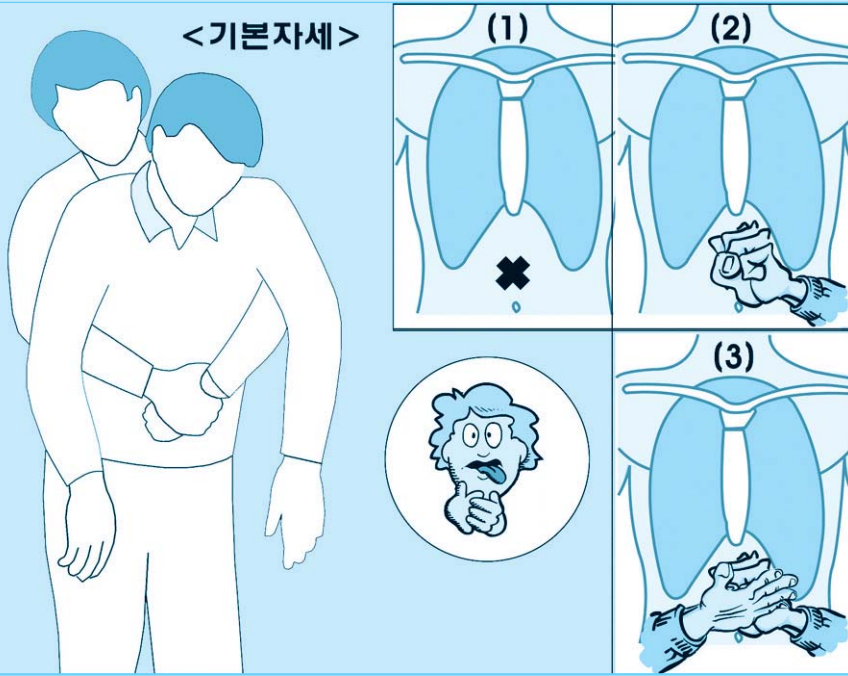


## 기도가 막혔을 때 취하는 응급처치법



### <아이 및 성인의 응급처치법>


복부밀쳐올리기(하임리히법(Heimlich maneuver))

구조자는 아이의 뒤에서 안은 자세를 한다. 이 때 한손은 주먹을 쥔 채 엄지손가락 쪽을 아이의 배쪽으로 향하게 하고 엄지손가락을 아이의 배 중앙(환자의 배꼽 위와 흉골 아래쪽 끝 사이)에 놓는다. 다음은 다른 손으로 주먹권 손을 감싸고 아이의 배를 끌어안듯이 등쪽으로 강하게 밀쳐 올려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시술한다. 아이가 의식을 잃어 누워있을 때에도 구조자는 환자의 무릎쪽에 앉아 두 손을 아이의 배쪽으로 넣은 다음 선 자세와 마찬가지로 압박을 가하면 된다. 그러나 환자가 임신부이거나 비만자라면 “복부밀쳐올리기”가 불가능하다. 이 때에는 같은 자세에서 “흉부압박법”을 실시한다.

### <1세 미만 영아의 경우 응급처치법>

영아를 엎어놓고 구조자가 한손으로 영아의 턱과 가슴을 받친 자세에서 영아의 견갑골(어깨뼈) 사이를 5회 정도 두드려 주면 된다.

### <혼자 있을 때 자가 처치법>

혼자 음식물을 섭취하던 중 기도폐쇄가 발생할 경우, 환자는 자신의 배꼽 위와 흉골 아래쪽 끝 사이의 배 중앙 부위를 등받이 의자의 등받이 부근에 댄 다음 힘을 빼고 복부에 압박을 가하면 된다. 

응급처치 시간대별 소생률은 0분 100%, 1분 97%, 2분 90%, 3분 75%, 4분 50%, 8~10분 0%로 나타나므로 조속한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.